

2008년 북유럽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이 글은 북유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경제 현황과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를 간략하게 다룬다. 스칸디나비아 3국 중 스웨덴과 덴마크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고, 노르웨이는 아직도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나 경제 및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 북유럽 국가의 경제일반

스웨덴의 경우, 최근 수출 물량의 지속적인 하락과 중앙은행의 조심스러운 금융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내수시장에 있어 수요는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4.4%보다 상당히 낮은 2.7% 수준으로 내려 갈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산업에 대한 해외 주문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국내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태도는 2008년도 전반기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약간 낮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하지만 2008년도 후반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와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이후 높아진 임금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09년 두 해 동안 스웨덴 가계의 실질임금이 상당히 오를 것을 예고한다. 현재 전 세계

를 휩쓸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면 스웨덴의 가계들이 다시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 속도가 점차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008년에는 3.0% 그리고 2009년에는 2.0%가 되리라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이다.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스웨덴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수출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스웨덴 가계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있다. 2007년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수출 물량의 감소 외에 수출산업이 생산시설 부족을 겪었고 통신장비, 의약품, 그리고 개인용 자동차 등 스웨덴의 몇몇 중요한 수출품에 대한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지난해 수입 물량의 높은 증가는 기업들이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수입을 늘린 것과, 또한 자동차 · 기계류 · 희소성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²⁾

노르웨이는 2007년도에도 유럽통화권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약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20년을 통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노르웨이 수출시장의 호조, 투자 증대, 공공부문 수요 증대, 그리고 낮은 금리가 최근 5년간 노르웨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불안정한 세계금융시장, 인플레이션을 낮출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 2007년에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연이율 5%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노르웨이 통화 크로나의 계속되는 강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 노르웨이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³⁾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유럽통화 유로화와 노르웨이 통화 크로나의 환율 차이,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원유 가격은 노르웨이 통화 크로나의 강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예전에 비해 완만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의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였고 임금인상률은 높아서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앞으로 노르웨이 수출시장의 증가세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노르웨이 경제의 호조에 따라 최근 가계소비도 상당히 증가했다. 2007년도의 경우 가계소비의 성장 속도가 낮아졌기는 하지만 약 7%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85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08년에

1) Konjunkturinstitutet (2008), Konjunkturläget januari, "Hjulen i svensk ekonomi snurrar långsammare"

2) Konjunkturinstitutet (2008), Pressmeddelande Konjunkturbarometern Januari, "Företag och hushåll"

3) Statistics Norway (2008), "Economic trends for Norway and abroad," http://www.ssb.no/kt_en/

는 전기료가 상당히 오를 예정이고 금리도 높아져, 노르웨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예전보다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 증가세도 어느 정도 낮아져 약 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지난 10년간 평균 소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2008년도에는 가계 부문의 투자 증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건설 경기는 계속 활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가격은 일반 물가수준과 비슷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덴마크의 2007년도 말 경제는 제조업의 높은 가동률과 높은 고용률을 볼 때 경기순환의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간 실업률이 계속 낮아져 2007년 말에는 약 3.2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 덴마크 경기가 계속 활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력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특히 청년들과 이민자들의 높아진 노동시장 참가율과 노동시간의 증가를 반영한다. 덧붙여 덴마크 경제의 활성화는 인접 국가인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계속되는 노동력 유입에 기인한다. 2005년과 2007년 간 발생한 고용률 증가의 약 3분의 1일은 구조적 또는 지속적인 고용인원의 증가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 간 계속된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덴마크 정부의 재정상태를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003년 덴마크 정부의 재정은 균형상태였는데 2007년과 2008년에는 약 3~4%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흑자 중 일부분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실제 재정흑자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약 1.5%에 달한 것으로 본다.⁵⁾

2007년 봄에 타결된 민간부문 임금 단체협상 결과의 여파로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이 증가했으며 시간당 임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있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4.25~4.7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덴마크의 시간당 임금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과 덴마크의 전통 교역국가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덴마크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덴마크의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2008년 초반부에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2005년 여름 이후 덴마크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덴마크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2008

4) Ibid.

5) Danish Finance Ministry (2008), "Economic Survey August 2007", http://www.fm.dk/db/filarkiv/18032/English_Summary_August_2007.pdf, p. 1

년도에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어느 정도 둔화되었는데 2008년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더 이상 낮아질 여지가 없고 또한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더 이상 증가할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그보다 낮은 2.25%를 기록할 예정이며 2008년도에는 그보다 더욱 낮은 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감소 추세에 있는 소비와 투자에 기인하며 특히 가계 소득의 낮은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에 기인한다. 실제로 소비의 낮은 증가는 그동안 계속되어 온 공급 주도의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⁶⁾

덴마크의 수출시장은 세계시장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약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특히 덴마크의 수출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계속 호조를 유지할 것인 반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덴마크 민간 부문의 높은 임금인상률은 결국 덴마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덴마크 국내의 강한 수요 증가는 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수입량 증가로 충족되었다. 이는 덴마크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덴마크 정부의 재정 흑자를 2005년 3.75%에서 2007년 말 1.75%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덴마크 정부의 재정 흑자는 2008년에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주택시장은 2006년부터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택 대출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도 말 경에 이르면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던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 북유럽 노동시장

2007년 스웨덴 경제는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시장은 2006년 가을 중도우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상당히 호조를 띠어 2007년 한 해 동안 약 106,000명에

6) Ibid.

7) Ibid., p. 2

해당하는 고용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는 약 2.4%에 해당하는 고용 성장률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신규 고용 계획 정도, 공공직업알선소에 의뢰된 구인건수 등 주요 노동시장 지수를 볼 때 2008년에는 고용 인원과 노동시간의 증가가 2007년에 비해 낮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2008년 초 반기부터 시작해 경기의 둔화로 고용이 점차 감소할 것이지만 그 대신 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약 65,000명에 해당하는 고용 증대가 있을 예정이며 2009년에는 20,000명에 해당하는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 인구의 증대는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⁸⁾

스웨덴 기업들 중 노동인력의 부족을 보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의 숙련공 부족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업률은 상당히 낮아졌는데 전체 노동인구 중 2005년의 실업률 7.7%에서 2007년은 6.1%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실업률의 감소세가 줄어들어 이 두 해 모두 실업률이 5.6%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가 2008년 정부 예산의 고용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가사 노동에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약 0.3%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1년간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는 장기상병휴가 자들을 정규 노동시장으로 재편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반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보험 수급조건 완화, 그 대신 노동시장 재진입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는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육보조금의 실시, 간접세 증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 등은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⁹⁾

노르웨이의 경우, 2005년 이후 경기의 호황세가 계속되어 고용인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특히 2007년 초의 실업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07년 전체를 볼 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거의 일치하여 실업률이 더 이상 낮아질 여지가 없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높은 이윤과 균형 상태에 이른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인상으로 나타났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앞으로도 임금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세율 변화를 감안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노르웨이의 물가상승률은 약간 높은 편인데 그래도 2007년 10월의 경우 단지

8) Konjunkturinstitutet (2008), Pressmeddelande Konjunkturbarometern Januari "Företag och hushåll"

9) Statistics Norway (2008), "Economic trends for Norway and abroad", http://www.ssb.no/kt_en/

1.4%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평균 1.9%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만일 노르웨이 통화가 더욱 강세를 유지하고 임금이 서서히 인상된다면 예상치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연료비인데 연료비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7년도 0.6%에서 2008년에는 2.7%로 상승할 것이다.¹⁰⁾

덴마크의 경우, 공공직업알선소에 등록된 실업자수가 2003년 12월 이후 90,000명 줄어들어 2007년 6월에는 97,400명의 실업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업률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3.25% 수준이며 1974년 이후 최저치이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OECD국가보다 낮다. 이렇게 낮은 실업률은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인력난으로 이어졌다. 건설업 부문의 인력부족은 2006년 가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후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인력부족은 심각한 편이다. 제조업 부문은 2006년도에 점차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그 정도가 심화되어 2007년 3월에 역사상 최고의 인력난 부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의 시설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용 기회의 증대는 과거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있던 청년노동자들과 이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켰다. 2005년과 2006년간 고용인원이 55,000명 증대하였고 전체 노동인구는 21,000명 증대하였다. 노동인구의 증가는 청년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200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노동력과 스웨덴·독일의 노동력이 덴마크 노동시장에 진입한 결과이다.¹¹⁾

덴마크의 민간 부문은 지난 2007년도에 향후 3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임금 단체협약을 타결하였는데 이는 지난번 임금 단체협약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만 중앙 수준에서 결정하고 실질 임금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교섭하는 산업보다는 중앙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중앙 수준의 임금협약은 개별 임금협약에 비해 임금 인상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중앙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런 높은 임금인상률은 기타 부문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높여 사업장 수준의 임금협상에서 상당한 높은 임금인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2007년에 4.6%, 2008년에는 4.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의 임금이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임금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진다

10) Ibid.

11) Danish Finance Ministry (2008), "Economic Survey August 2007," http://www.fm.dk/db/filarkiv/18032/English_Summary_August_2007.pdf, p. 12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현상은 2000년 이후에 계속 되어온 사실이다. 2006년에는 실업률이 5% 이었는데 2008년에는 이보다 낮은 4.25%가 되리라고 예상된다.¹²⁾

■ 북유럽 노사관계 전망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경우, 계속되는 인력부족은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사업주들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높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직도 비교적 높은 스웨덴의 실업률은 사업주들의 인력 채용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덴마크의 민간부문의 임금 단체협약은 2007년에 타결되었고 이제 곧 공공부문 임금 단체협상에 들어갈 것인데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은 공공부문 임금 단체협상에 난항을 예고한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민간부문 수준과 맞먹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인데, 덴마크 정부가 현재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높은 임금인상을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노사는 최근 노동시장에 있어 새로운 산업평화협약(Saltsjöbadaavtalet)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협약은 노동시장 분쟁해결 규칙, 고용보호, 해고자와 장기 상병휴가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¹³⁾ 노사 양측 모두 새로운 협약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를 고려할 때 협상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하다.

■ 맺음말

스웨덴의 경우, 2007년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임금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최근 스웨덴 제조업 노동조합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검토 결과 과거 10년간 스웨덴 제조업의 임금이 연간 평균 3.5~4% 인상되었는데 이는 유럽국가 전체 제조업의 임금인상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2007년도 제조업 임금은 이웃 나라인 노르웨이 ·

12) Ibid., p.8.

13) Svenska Dagbladet (2008-01-31), "Positiva toner kring nytt Saltsjöbadaavtal."

덴마크보다는 낮지만 동유럽 국가의 제조업 임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원유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 호황에 힘입어 임금도 계속 올라가 이웃 나라 스웨덴으로부터 노동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덴마크 또한 임금수준이 높아 스웨덴의 노동력을 유인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의 의견에 의하면 스웨덴의 높은 임금인상률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대치되며 앞으로 실업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3년간의 임금인상률은 사업주 복지 부담금을 감안하면 평균 4.9%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의 실업률은 5.7%인데 높은 임금인상률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률은 6.2%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립경제연구소는 금번 임금협상 결과는 실업률의 감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스웨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앞으로 3년간 경기가 호황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만일 국제 경기가 악화되고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높은 임금인상률은 스웨덴의 전반적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KLI**